# 롯데百, 지역점포 권한 강화 '소사장제' 도입

광주·전남·전북·충청 호남충청지역장 독립 운영 고객 트렌드·의견 즉각 반영 등 맞춤 서비스로 매출 신장 기대

롯데백화점이 광주와 전남, 전북을 비롯한 호남을 비롯한 충청지역까지 아우르는 모든 점포에 이른바 '소사장제'를 도입하는 등 독립운영 체제에 나섰다. 파격적인 조직 개편으로 각 지역 상권별 고객들의 소비트렌드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것은 물론, 고객과 파트너사들의 고충과 의견도 곧장 반영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27일 롯데백화점 광주점에 따르면 롯데 백화점은광주·전남·전북·충청을아우르는 '호남충청지역장'이라는 독립운영 체제로 경영실험에 나섰다.

우선 광주점을 비롯한 롯데아울렛 수완점, 광주월드컵점, 무안 남악점 등 광주·전남지역 4개 점포와 롯데백화점 전주점, 롯데몰 군산점 등 전북 2개점, 롯데백화점 대전점, 아울렛 부여점, 아울렛 청주점, 청주영플라자점 등 충청지역 4개점 등 총 10개점을 통합했다.

앞서 롯데백화점은 지난 1월 기존의 영업 조직이던 영업 1본부(서울·경기도 백화점), 2본부(지역점포 백화점), 3본부(아울렛)의 운영체계에서 대표이사 직속의 수도권 1지역장(서울 소재 백화점), 수도권 2지역장(경기도 지역 백화점), 수도권 3지역장(서울·경기도 아울렛), 영남지역장, 호남충청지역장 등 5개 조직으로 재편하는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한 바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9층 디지털 가전전문관에서 고객이 안마의자에 앉아 상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호남과 충청권 매장 10개점을 통합해 호남충정지역장을 출범, 독립운영 체제로 운영해 지역 특성에 맞는 경영에 나서고 있다. 기존 광주점 역시 9층 의류매장을 백화점 일대 재개발 추진에 맞춰 디지털 가전전문관으로 발 빠르게 개편하면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게 대표적인 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이는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점포 4개점을 통합해 지역 점포 권한을 강화하는 '광주영업부문'을 신설, 우선적으로 시범 도입한 결과 성공적인 성과를 얻었다는 분석에서 추진됐다. 이를 보완해 전국적으로확대·반영한 것이 올해 지역장별 조직 개편 내용이다.

이에 따라 기존 본사 위주로 진행되던 매장구성(MD)과 인사, 마케팅, 예산 등 모든 권한을 각 지역장에게 위임해 상권에 가장 적합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 편, 이를 통해 영업과 상품, 온라인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복안이다.

'호남충정지역장' 역시 롯데백화점 광주점을 비롯해 각 지역 상권별 고객의 니즈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파트너사의 고충과 의견을

현장에 즉각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사로부터 권한을 이관 받아 지역 상권 에 최적화된 매장 구성(MD) 등 고객들의 소비트렌드를 빠르게 적용하기 위해 자체 적인 기획상품(MD)을 마련하는 지역장 직속 MD팀을 신설했다.

또 기존 광주영업부문 시범운영 결과 가장 뛰어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았던 부분이 '현지바이어' 제도다. 현지 바이어의 상권 맞춤형 매장구성, 지역 유명 맛집등 콘텐츠 발굴, 차별화 행사 등도 신속한의사결정과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졌다는점도 긍정적인 변화다.

대표적으로 전북 익산의 지역 명물 빵집으로 꼽히는 '풍성제과'가 롯데백화점 광주점 입점 이후 성공에 힘입어 아울렛 광

주월드컵점에도 입점했고, 광주시 동구지역 구도심 재개발과 더불어 광주점 9층의류매장을 과감히 줄이는 대신, 디지털가전 전문관을 리뉴얼 오픈하는 등 빠른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디지털 가전전문관의경우 기존 의류매장이 있었을 때와 비교해40%이상 매출신장율을 기록하는 등 뚜렷한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정윤성 호남충청지역장은 "호남지역 롯 데백화점은 지역 고객들의 과분한 사랑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성장해왔다"며 "전국에 서 가장 트렌드에 민감한 호남지역 고객의 높은 수준에 부응하기 위해 혁신적인 매장 개편과 차별화된 상품, 서비스를 지속적으 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 "답답함에서 해방" 언더웨어 브라렛 인기

#### 광주신세계 관련 상품 선보여

㈜광주신세계(대표이사 최민도)는 최근 언더웨어 상품 중 '브라렛' (Bralette)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음에 따라 관련 상품들을 선보인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광주신세계에 따르면 언더웨어 업계에서는 남들의 시선보다 자신의 몸 을더 중요시 여기는 소비트렌드의 확산 으로 브라렛 제품 출시가 잇따르고 있 다. 브라렛은 몸을 조이는 와이어와 패 드가 없어 건강에 지장을 주지 않고 착 용감이 편하다는 게 장점이다.

이에 따라 광주신세계 '엘라코닉' 매 장에서는 상품의 90% 이상이 와이어가 없는 상품들로 구성해 판매하고 있다. 대표적인 상품으로 '블랙 플라워 패턴 브라렛'을 7만9000원에 선보이며, '핑 크 플라워 패턴 프론트 훅 브라'와 '노 와이어 옐로우 브라'를 각각 6만9000원 에 선보인다.

'비비안' 매장에서는 '비비안 브라렛 세트'를 10만7000원, '비비안 노와이어 언더웨어 세트' 8만5000원에 선보이고 있다. '비너스' 매장 역시 '런닝 브라 세트' 11만8000원, '비너스 브라렛' 4만 9000원에 판매 중이다.

요가복과 홈웨어 상품들을 주력으로 판매하는 '세컨스킨' 매장에서도 '뱀부 베이직 캐미브라' 1만9900원, '베이직 탱크 브라' 1만9000원 등 다양한 상품 을 판매하고 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 롯데마트 '삼삼데이' 맞아 할인행사 진행 1월 유통업 매출 10.6% 1

#### 오늘부터 내달 3일까지

롯데마트는 28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삼삼데이(3월3일)을 맞아 기획행사를 진 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롯데마트에 따르면 최근 대형마트 틀이 온라인 시장과 대형복합몰에 빼앗긴 고객의 발길을 되돌려 놓기 위해 초저가 등 기획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다음달 3일 삼삼데이(삼겹살 데이)를 앞두고 대형마 트의 마케팅 경쟁 역시 치열할 것으로 예 상된다.

이에 따라 롯데마트는 28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삼겹살 100g당 980원에 선보이는 행사를 진행한다. 엘포인트(L.point)카드와 롯데·국민·BC·농협카드로 결제할경우 해당 가격에 구입할 수 있으며 광주·



전남지역 롯데마트 전점에서 판매할 예정

최유성 롯데마트 상무점 부점장은 "삼삼 데이를 맞아 국산 돼지고기를 합리적인 가 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행사를 준비했다" 며 "온 가족이 함께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 1월 유통업 매출 10.6%↑ …설 선물세트 판매 늘어

이른 설 덕분에 선물세트 등 관련 제품 판매가 증가하면서 지난달 유통업 매출이 크게 늘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월 주요 유통 업체 매출이 전년 대비 10.6% 증가했다고 27일 밝혔다.

오프라인 부문이 6.5%, 온라인이 17.3% 증가했다.

오프라인 유통업체는 설 명절이 전년보다 앞당겨진 덕분에 명절 선물세트 판매 등이 증가하며 지난해 2월 이후 가장 높은 매출 증가율을 기록했다. 지난해(2월 16일)와 달리 올해는 설 연휴가 2월 5일에 시작하면 서 관련 제품 판매가 1월에 집중된 것이다.

편의점은 점포 수 증가와 1인 가구 확산에 따른 가공·즉석식품 성장으로 매출이 6.6% 증가했다.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선물세트 수 요 증가 덕분에 매출이 3.7% 성장했다.

백화점은 선물세트 등 식품과 가정용품을 중심으로 전체 매출이 7.6% 증가했다. 대형마트도 명절 영향과 양곡 가격 상승으로 식품군 매출이 늘면서 전체 매출 상

온라인은 온라인판매(20.8%)와온라인 판매 중개(15.9%) 모두 크게 늘었다.

승(6.3%)으로 이어졌다.

온라인판매는 소형가전 판매 증가, 여행 상품 기획전, 명절 선물 판매 등에 힘입어 전체 매출이 증가했다. 온라인판매 중개는 지방축제 상품 명절 선물, 생활용품 등이 매출 증가를 견인했다.

상품군별 매출은 식품(21.7%)과 유명 브랜드(12.3%) 등을 중심으로 대부분 증 가했다. /연합뉴스

### 이마트 상무점, 초소형전기차 '트위지' 판매

#### 블랙박스 무료 장착 등 제공

이마트는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위해 28일부터 이마트 상무점 '엠 라운지' (M-Lounge)에서 르노의 전기차 모델 '트위지' (TWIZY) 판매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엠 라운지'는 국내 최초의 스마트 모 빌리티(전기차·전기오토바이·전기자전 거·전동휠 등) 전문 편집매장으로 다양 한 브랜드의 스마트모빌리티를 한 자리 에 전시해 소비자가 직접 비교, 체험 후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번 트위지 차량 판매 개시로 기존 'D2'와 전기이 륜차 외 전기차 라인업이 확대됐다.

트위지는 도심형 소형전기차 대표모 델로 꼽히며 복잡한 도심에서 뛰어난 기동성과 에어백·디스크브레이크, 4점식안전벨트, 탑승자 보호캐빈 등을 갖춰안정성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일반 가정용 220V 콘센트로 충전(3.5시간 완충·80% 충전 2.5시간)가능하며 1회 충전으로 최대 80km(최고시속80km) 주행할 수 있다.

2명이 탑승할 수 있고 화물을 싣는 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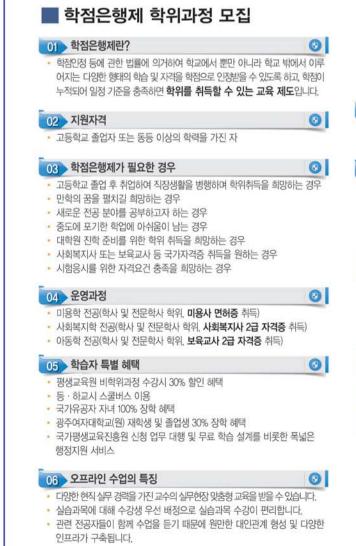
고(Cargo) 모델은 1명 탑승 이외 트렁 크가 설치돼 최대 180 ℓ (75kg)까지 화 물을 적재할 수 있다. 차량 정가는 1300만원, 카고(Cargo)는 1480만원 이다. 국고보조금 450만원과 지자체 보 조금(광주시 2월기준 250만원)이 지원 돼 실제 구매가는 광주 기준 600만~ 780만원 수준이다.

장원종 이마트 상무점장은 "상무점은 지역최초로 전기자동차를 판매하며 친 환경자동차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며 "전기차충전소를 기반으로 전기차 구매 에서 충전까지 원스톱 쇼핑이 가능한 환 경구축에 앞상서 나갈 예정"이라고 말 했다.

한편, 이마트 상무점은 KB국민카드로 전기차 'D2'를 구매할 경우 금융혜택을 제공한다. 일시불 구매시 최대 1.1% 캐쉬백, 12개월 무이자 할부, 최장 60개월 저금리할부(2.9%~3.2%), 최대 2000만원 특별한도 부여 등이다. 또 트위지 구매고객에게는 프리미엄 윈도우무료장착과 블랙박스 무료장착(선착순40명)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 2019-1 광주여자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수강생모집





- 과목당 학점 : 3점 모집인원 : 40명 - 과목당 수강료 : 150,000원

• 전문적인 지식을 비탕으로 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한 특강, 체험학습, 전공 관련

•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학위신청 등 번거로운 행정 업무를 기관에서

자격증 취득 등의 다양한 현장실무중심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일괄 접수, 신청해 드립니다.

